

사회

# 금융기관만 덕보는 전자소송

## 대부분 채권추심... 채무자 없어도 수십초만에 재판 끝

### 70%가 소액 사건... 소송남발 방지책 필요

“박○○씨, 안 나오셨습니까? 원고 승소 판결하였습니다.”

지난 29일 오전 광주지법 304호 법정에서 열린 구상금 청구 전자소송은 15초도 안 돼 원고인 금융기관의 승소로 끝났다. 법정에는 원고 측 관계자 밖에 없었다.

이날 전자소송은 모두 캐피탈 업체, 카드사, 공사, 은행 등이 카드대금, 전력사용료, 대여금 등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내용이었다.

금융기관 등이 손쉽게 승소 판결을 받고 곧바로 채권추심절차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데 재판당사자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전자소송이 이용되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5월 시범실시를 거쳐 올해부터 형사소송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전자소송이 도입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원고 대부분이 금융기관이나 공사 및 공공기관인 것으로 파악됐다. 주소지가 불분명해 소송 관련 서류를 받아보지 못한 채무자들은 자신이 소송을 당했는지, 패소 여부조차 알 수 없어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전자소송은 재판 관련 인증서를 발급받고 스캐너로 서류 전체를 PDF 파일로 제출하도록 돼 있어 일반인보다는 전문적인 인력이나 사무기기를 갖춘 금융기관 등에게 유리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1일 광주지법과 목포·장흥·순천·해남지원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소송의 19.5%가 전자소송이었다. 5건 중 1건에 이를 만큼 빠르게

정착되고 있는 전자소송은 올 2월까지 지 모두 7693건에 달했으며 이중 70% 이상인 5403건이 소액액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이었다.

이처럼 전자소송이 크게 늘고 있는 이유는 과거 소액 재판의 경우 번거로운 절차, 채무자와의 연타 두절 등으로 인해 소를 제기하지 못했던 금융기관 등이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변호사비도 건당 10만원 선에 불과하고, 재판 결과도 곧바로 알 수 있는데다 인지비용도 10%를 감면해 주 있어 금융기관 등의 민사소송건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 변호사는 “금융기관 등이 소액 채권을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했던 부분을 이 제도가 해소해준 것”이라며 “일단 승소한 뒤에는 채권추심업체 등에 관련 채권을 넘기면 그만”이

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자소송 제기 전 채무자와의 연락 및 충분한 협의 등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여부, 금융기관 등의 소 제기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광주지법 한 판사는 “전자소송이 현재로서는 기관소송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소송 남발을 막고 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변호사비도 건당 10만원 선에 불과하고, 재판 결과도 곧바로 알 수 있는데다 인지비용도 10%를 감면해 주 있어 금융기관 등의 민사소송건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전자소송=재판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 증거서류를 인터넷으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는 등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



“선거권 확대하라” 광주 YMCA와 21세기 청소년공동체 희망, 광주흥사단, 청소년 봉사동아리연합 ‘WISH’ 회원들이 1일 광주시 동구 충장로 우체국 앞에서 청소년 선거권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 후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대출금리 부당인상 12억 이득 비이농협조합장 등 3명 기소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지난 30일 CD(양도성에금증서)금리에 연동하기로 약정된 대출자들의 가산 금리를 임의로 인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얻은 광주 비이농협조합장 이모(62) 조합장 등 3명을 컴퓨터 등 사용 사기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합장 등은 지난 2009년 CD금리연동대출 상품이 CD금리 하락으로 인해 수익률이 나빠져 손해를 보자 비이농협 본점과 광산구 내 9개 지점에서 대출자 896명의 동의없이 대출계좌의 가산금리를 높여 전산 단계에 입력하는 등의 방법으로 금리를 조작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1억8500여 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

비이농협은 2008년 말 기준으로 총

대출금 중 CD금리 연동대출 비율이 32.16%에 달했다. 이 조합장 등은 여신 담당 직원들에게 민원이 발생하면 면책해 주겠다고 범행을 독려, 금리를 최대 2.03%까지 인상시켰다. 고객 중 최대 피해규모도 1400만원이었다.

이들은 농협중앙회로부터 금리를 임의로 변경하지 말라는 공문을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밝혀졌다. 비이농협은 범행이 들끓자 지난해 초 부당 이득금을 피해자들에게 모두 환급해 줬으며, 이 조합장 등 임직원 16명이 받은 특별사면금 2400만원도 반납했다.

검찰은 광주 서창농협에서도 이와 유사한 금리 조작이 있었으나 10억원 이상 규모에 대해서만 수사한다는 대검의 방침에 따라 대상에서 제외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반찬 만들어 팔려고... 마트서 식료품 훔쳐

광주 북부경찰은 1일 대형마트에서 식료품을 훔친 A(47)씨 등 2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A씨 등은 지난 2월 4일 밤 12시20분께 광주 한 대형마트 식료품 매장에서 밀치, 약재 등 6종,

시가 10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접퍼 속에 숨겨 가지고 나오는 등 모두 5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대형마트 인근에서 식품가게를 운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훔친 식료품을 이용, 반찬을 만들어 판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사가 시작되자 가게 문을 닫은 뒤 어관 등지에서 생활하다 붙잡혔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檢, 동구 불법선거 50대 구속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송규종)는 1일 전직 동장 투신사건으로 불거진 광주시 동구 불법선거와 관련 박모(53)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박수선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는 동북아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선거캠프에서도 활동했으며, 지난 1월과 2월 두 차례에 걸쳐 선거자금 수천만원을 이미 구속된 동구청 자원봉사센터 김모 사무국장에게 전달한 혐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순천 일가족 살해 용의자 공개 수배

순천경찰은 1일 지난 26일 발생한 순천 일가족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살모(41·사진)씨를 현상금 500만원에 공개 수배했다. 살씨는 키 174cm의 보통 체격으로 서울 말씨에 다리를 약간 절고 있으며 사기 등의 혐의로 4년전부터 지명수배를 받아왔다. 경찰은 살씨가 ‘김동현’이라는 가명과 동생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순천경찰서 형사과 강력3팀 061-751-3408, 751-1112. /동부취재본부=김은종기자 ejkim@

## 국고보조금 횡령 이호균 도의회 의장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 30일 국고보조금 횡령 등의 혐의로 이호균(50) 전남도의회 의장을 구속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 영장전담 박상재 판사는 이날 이 의장에게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의장은 목포과학대 학장과 총장 재직시절인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대학 산학협력단의 특성화 사업 등과 관련해 수억원의 국고보조금과 교비 등을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장의 횡령 규모는 30여억원에 달했다. 이 의장은 2006년과 2010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재선의원으로 삼반기 도의회의장을 맡고 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30년전 생이별 모자 상봉 '감격 눈물'

○“어려운 가정형편으로 30여년 전 헤어져 생사를 몰랐던 모자(母子)가 경찰의 도움을 받아 극적으로 상봉.

○“광주동부경찰은 1일 김모(여·69·인천)씨가 최근 ‘꼭 외손자를 찾아오라’는 친정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 잃어버린 아들을 찾고 싶다고 요청해와 탐문수사와 출입국 조회, 통신사 조회 등 끈질긴 노력 끝에 아들 구모(44)가 현재 광주 동구에서 지낸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모자의 만남을 주선.

○“경찰의 연락을 받고 한결같이 달려온 구씨는 경찰서에서 꿈에서도 그리던 어머니와 만나 감격의 눈물.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단돈 10원’ 경매에 모두 속았다

### 낙찰 유인 2억 가로채... 피해자 자살도

‘단돈 10원’이라는 말에 속아 인터넷 경매사이트(릭스텐)에 한 번 발을 담근 이용자들은 예외없이 온라인 사기의 표적이 됐다. 사람들은 물건을 10원씩 올리러 입찰 사이트에 몰려들었고 운영자는 이를 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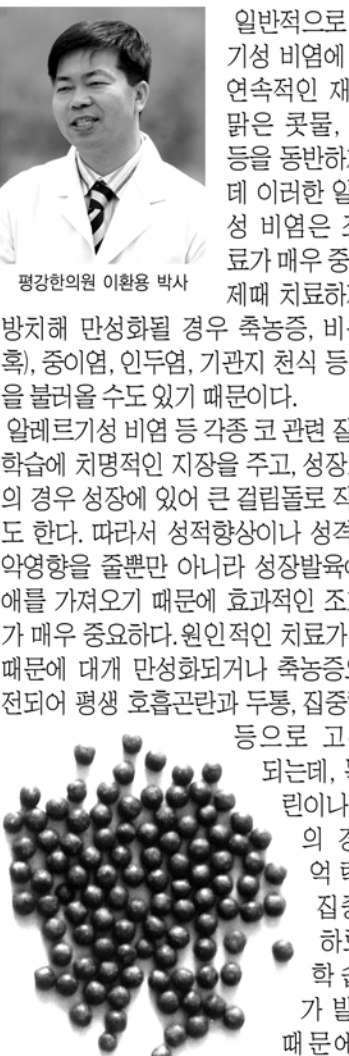
목포경찰은 1일 인터넷 경매에 참가한 낙찰자들의 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2억2000만원을 챙긴 김모(30)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가 개설한 10원 경매사이트는 500원짜리 입찰권을 구입하면 참여할 수 있으며, 회원들이 한 번에 10원씩 가격을 올리며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씨는 그러나 정상적으로는 이 사이트를 운영할 수 없게되자 경매 참가자 7명에게 낙찰받으려면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직접 전화를 걸

어, 한 차례에 100만원 내외 등 총 178차례에 걸쳐 1억1000만원을 가로챘다.

김씨는 또 게임아이템을 판다고 속여 온라인 게임에 빠진 회사원 A(33)씨에게 4800만원을 받는 등 1억1000만원을 챙겼다. 사기를 당한 A씨는 대출금 납입 독촉 등 자금 압박을 받다가 지난 2월 중순 자살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서부취재본부=고규석기자 yousou@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제때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 만성화될 경우 축농증, 비염종(물혹), 중이염, 인두염, 기관지 천식 등 합병증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알레르기성 비염 등 각종 코 관련 질환들은 학습에 치명적인 지장을 주고, 성장기 아동의 경우 성장에 있어 큰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성장상이나 성격형성에 악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성장발육에도 장애를 가져오기 때문에 효과적인 조기 치료 가 매우 중요하다. 원인적인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대개 만성화되거나 축농증으로 진전되어 평생 호흡곤란과 두통, 집중력 저하 등으로 고생하게 되는데, 특히 어린이나 수험생의 경우 기억력이나 집중력 저하로 인해 학습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원인적인 치료를 필요로 한다.

**인체면역력 강화로 알레르기성 고질병을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면 연속적인 재채기와 맑은 콧물, 코막힘 등을 동반하게 되고 눈이나 인후부가 가렵거나 냄새를 잘 맡을 수 없게 된다. 또 눈물이 흐르거나 머리가 아파오고 피로해지는 등 다양한 증상을 보이게 되는데 코가 근질거리면서 많은 콧물이 줄줄 흐르고 재채기를 발작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이미 만성 알레르기 비염이 심각해진 것이며 결국 축농증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세가 심해지면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고 신경질적인 반응이 나타나며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감소되어 정서적으로 불안한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또 위장병이나 만성두통으로 발전하면서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알레르기성 비염은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유근피동 20여 가지로 만든 한약 고질적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에 좋은 효과**

평강한의원 이환용 박사 (한의학 박사, 경희대 한의과대학 외과교수) 02-3481-1656 www.dr-lee.co.kr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회 제090204-중-4738호

# 옥상·외벽·내벽·주택 방수

## 전문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이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이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 이앤지 방수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